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40일 기도집

생명을 택합니다

탈핵에서 생명으로 가는 40일순례



핵없는 생명 세상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40일 기도집

1. 제작 취지: 2015년 6월 18일은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 신청기한이며 이 때까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폐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위험한 노후원전 고리 1호기가 50년 가동되지 않고 폐쇄되며 재생가능에너지로 생활의 방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기독인이 힘을 모으기 위해 이 기도집을 제작하였습니다.
2. 기도집 제목: 생명을 택합니다 - 탈핵에서 생명으로 가는 40일순례
3. 주제 성구: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 30:19)
4. 기도기간: 2015년 5월 10일(주일) ~ 6월 18일(목)(40일)
5. 기도집 형식: 오늘의 말씀(개역개정판) - 오늘의 현실 - 탈핵의 기도 - 생명의 선택
6. 요일별 주제: 생명(주일), 문제(월), 고통(화), 잘못(수), 대안(목), 노력(금), 희망(토)
7. 기도방법: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 신청기한일을 상징하는 6시 18분(오전, 오후)에 5분 동안 기도합니다(시간 선택 가능).
8. 기도집 활용: 기도집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제작되므로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탈핵의 기도에 마음을 모으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의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 30:19)

🌐 오늘의 현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참사는 많은 경우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경제적인 효율성만을 따질 때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핵발전소 사고는 긴 시간, 넓은 공간에 걸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고리 1호기 폐쇄 여부를 놓고 우리는 생명과 사망의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 탈핵의 기도

생명의 하나님, 우리들의 시대는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탓으로 생명이 죽어가고 안전이 위협받는 일들 앞에서도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이 있는 우리들이 생명과 사망의 선택 앞에서 올곧게 생명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 생명의 선택

1. 매일 매일의 작은 선택들 앞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연습을 합니다.
2. 주위에 살아가는 다른 생명들을 소중히 대합니다.

2015년 5월 11일(월)

우라늄에 대한 기도(2일차)

📖 오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 2:17)

☢️ 오늘의 현실

우라늄이 핵분열하면 같은 무게의 석탄과 석유가 탈 때보다 각각 300만배, 220만배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자연세계에서는 땅속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라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탈핵의 기도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질서에 따라 땅 속 깊이 숨겨둔 우라늄을 캐내어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라늄 광산지역에서 우라늄으로 오염된 땅에 살며 오염된 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라늄을 더 이상 캐지 않는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 생명의 선택

1. 우라늄 광산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아봅니다.
2. 우라늄 광산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오늘의 말씀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에 3:6)

🌐 오늘의 현실

고리 1호기는 한국에서 최초로 1978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설계수명이 30년입니다. 그러나 2017년까지 수명이 10년 연장이 되었고 이번에는 또 10년을 연장하여 총 50년을 사용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는 고리 1호기 반경 30킬로미터에 있는 340만 명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는 ‘하만의 조서’와 같은 것입니다.

✝️ 탈핵의 기도

생명의 하나님, 부산에 있는 작은 바다마을 고리에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리 1호기는 수많은 고장으로 위험스럽고 불안을 주는 아주 오래된 원전입니다. 이 원전이 이제는 더 이상 가동되지 않고 폐쇄되며 40년간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땅을 되찾음으로 탈핵으로 가는 생명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생명의 선택

1. 고리 1호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시간을 내어 고리 1호기가 있는 마을과 발전소를 방문합니다.

2015년 5월 13일(수)

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도(4일차)

📖 오늘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5:22-23)

☼ 오늘의 현실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세계 8위(2012년 기준)로, 우리 사회는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는 전기 다소비 사회입니다. 과도한 전기 사용은 자연과 약자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줍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의 열매가 다른 열매를 온전하게 하듯이 이제는 전기와 에너지를 절제함으로써 착한 에너지 사용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 탈핵의 기도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전기와 에너지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전기를 밤새 켜두고 끄지도 않고 플러그도 뽑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자연세계에 부담을 주고 약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생활습관을 돌아보며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의 실천을 행하게 하소서.

☞ 생명의 선택

1. 하루 동안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전자 제품을 나열해 봅니다.
2. 자연과 약자에게 부담과 고통을 덜 주는 착한 에너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 오늘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겔 36:26)

☢️ 오늘의 현실

우리나라는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주로 하여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고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대안에너지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약자를 위한 착한 에너지를 찾으려고 마음을 새로 먹는다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 탈핵의 기도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이제까지 먹고 살아가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력 발전과 위험한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연과 약자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주기보다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과 에너지 구조를 결정하는 정치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 생명의 선택

1.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2. 우리 주위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하는 장소를 찾아 방문합니다.

2015년 5월 15일(금)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기도(6일차)

📖 오늘의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 21:1)

☯️ 오늘의 현실

옛날에는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향방에 따라 사람이 생명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의식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의 건강함이 결정됩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듯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도 붓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므로 원전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의식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 탈핵의 기도

생명의 주님,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화와 성숙함으로 가는 길 위에 있어서 아직도 갈등하고 반목하며 어느 길로 가야할지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선함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의식이 더욱 성숙해져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로서 이 땅의 시민들이 우뚝 서도록 도와주소서.

☞ 생명의 선택

1.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가지 찾아봅니다.
2. 에너지 전환에 힘쓰는 시민사회단체를 찾아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 오늘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 오늘의 현실

원자력 발전은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는 ‘부채 에너지’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필연적으로 배출하는 핵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분해야만 합니다. 또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좀 더 희망차게 살도록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 탈핵의 기도

생명의 하나님, “자연은 후손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자연과 지구를 빌리고는 우리들 편한대로 함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으니 우리의 미래세대가 살 땅을 고쳐주소서.

👉 생명의 선택

1. 우리 주위에 있는 미래세대 세 명의 눈동자를 바라봅니다.
2. 자신이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좋은 성품 하나를 찾아봅니다.

2015년 5월 17일(주일)
안전을 위한 기도(8일차)

📖 오늘의 말씀

“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사 32:16-17)

☣️ 오늘의 현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원전은 안전하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세 번의 큰 사고가 증명하듯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원전 때문에 지역주민과 약자들이 불안해한다면 안전사회가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이 정의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안전사회라 할 것입니다.

✚ 탈핵의 기도

안전한 반석이신 하나님,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이 절대 안전하다고 하면서 안전신화를 계속해서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또 원전 지역주민들은 불안해 합니다. 주님, 위험과 불안함을 주는 원전 정책이 폐지되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소서.

☞ 생명의 선택

1. 원자력안전을 심사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2. 안전한 사회를 위해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실천합니다.

📖 오늘의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 11:4)

🌐 오늘의 현실

핵폐기물에는 원전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신발 등의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폐기물이 있습니다. 중저준위는 300년, 고준위는 10만년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적 오만함으로 핵발전소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핵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분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각 발전소에 쌓여있는 핵 연료봉은 그 옛날 쌓아올렸던 바벨탑과 다름이 없는 오만함의 상징입니다.

✝️ 탈핵의 기도

안전한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는 과학 덕분에 편리하게 살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자연세계를 위험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법도 찾지 않고 핵발전소를 가동하며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책임과 오만함을 용서하소서.

🔑 생명의 선택

1. 13만 드럼의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책임을 다하도록 기도합니다.

2015년 5월 19일(화)

신고리 3호기에 대한 기도(10일차)

📖 오늘의 말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마 11:23)

☹️ 오늘의 현실

신고리 3호기는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 비리 사건으로 낙인찍힌 부실 원전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아랍에미리트로의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신고리 3호기 가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처사는 상업과 교역이 번창한 가버나움 사람들이 말씀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 탈핵의 기도

안전한 반석이신 하나님, 정부와 한전은 경제성만을 따져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신고리 3호기를 조기 가동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과학적 성과와 경제적 효율을 우선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입니다. 경제적 손해를 보더라도 안전과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책임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 생명의 선택

1. 신고리 1호기와 신규 원전의 가동 및 건설 허가가 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2. 돈보다는 생명과 안전을 선택하며 오늘 만나는 사람을 대합니다.

📖 오늘의 말씀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겔 13:19)

☢️ 오늘의 현실

핵 마피아란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자본가, 정치관료, 언론, 학자를 총칭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핵 마피아는 이제 언론에서도 회자될 만큼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거짓과 불안을 조장하여 시민의 여론을 호도하면서 자기의 잇속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 탈핵의 기도

안전한 반석이신 하나님, 핵 마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집단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거짓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핵 마피아들의 행태가 더 많이 드러나고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시어 더 안전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 생명의 선택

1. 핵 마피아에 속하는 집단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2. 핵 마피아가 시민을 의식할 정도로 시민사회가 올바르게 서도록 기도합니다.

2015년 5월 21일(목)

태양 에너지에 대한 기도(12일차)

📖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출 16:16)

☢️ 오늘의 현실

재생가능한 대안에너지인 태양광은 매일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태양광은 해당 지역에서 그날그날 쓸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태양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순응하게 됩니다.

☞ 탈핵의 기도

안전한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위로 날마다 햇빛을 보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만큼 햇빛을 받고 태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걱정이 없고 안전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고 착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 생명의 선택

1. 주변에서 태양광 주택, 건물과 시설을 찾아봅니다.
2. 자신이 속한 교회와 공동체가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독려합니다.

2015년 5월 22일(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도(13일차)

📖 오늘의 말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 65:25)

🌐 오늘의 현실

1991년에 남한과 북한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선언입니다만, 원전을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 탈핵이 이루어지면 한반도는 더 온전한 비핵지대가 될 것입니다.

✝️ 탈핵의 기도

안전한 반석이신 하나님,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남한의 핵발전으로 한반도는 여전히 위험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핵무기도 버리고 핵발전도 포기함으로써 대안에너지로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가 되도록 도우소서.

👉 생명의 선택

1. 한반도가 비핵무기, 비핵발전 지역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2. 우리 사회가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를 찾아봅니다.

2015년 5월 23일(토)

약자를 위한 기도(14일차)

📖 오늘의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눅 15:4)

☉ 오늘의 현실

원전 정책은 필연적으로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원전이 건설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희생되고 송전탑이 들어서는 마을이 깨어집니다. 참 목자는 아흔아홉 마리 양보다 약자인 한 마리를 찾아 떠납니다. 아흔아홉 마리 양들은 자기가 길 잃어 약자가 될 때에도 목자가 자기를 찾으리라는 믿음으로 잃은 양을 찾아 길 떠나는 목자를 바라볼 것입니다.

✚ 탈핵의 기도

안전한 반석이신 하나님, 길 잃은 약한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보면서 약자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희망을 봅니다. 희생을 강요당하는 원전지역 주민들과 송전탑 마을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원전 정책을 보며 약자의 편에 서게 하시고, 약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원전 정책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주소서.

☞ 생명의 선택

1. 자신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 지역의 주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원전 정책의 약자를 생각하며 오늘도 물과 전기를 아껴 씁니다.

📖 오늘의 말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눅 10:39)

☢️ 오늘의 현실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과도한 소비와 탐욕적인 개발로 일어난 인위적인 현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과 집단들은 지구온난화가 주기적인 자연적 현상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소유를 덕목으로 삼으면서도 정작 고요하고 평온하게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영적인 각성은 놓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 탈핵의 기도

말씀의 하나님, 우리는 물질과 소비와 소유로 마음이 분주해져 버려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평온함과 영적인 각성을 놓쳐 버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듯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 새로운 길을 찾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보면서 피조세계와 공존하도록 영적 각성에 이르게 하소서.

☞ 생명의 선택

1. 말씀을 펴고 조용하게 주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2. 10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지구의 소리를 듣습니다.

2015년 5월 25일(월)

핵무기에 대한 기도(16일차)

📖 오늘의 말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 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 버리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계 8:7)

☢️ 오늘의 현실

1945년의 원폭 투하로 히로시마에서는 16만 명이 사망(한국인은 3만 명)하고 나가사키에서는 7만 명(한국인은 1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태평양은 열강들의 핵실험 장소로 이용되어 오늘까지도 주민들은 죽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피 섞인 우박과 불과 같은 세계의 파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 탈핵의 기도

말씀의 하나님, 원폭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과 한국 등지에서는 원폭 피해자의 자녀와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핵 실험을 했던 태평양 섬들에서는 아직도 방사능 오염으로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 앞에서 사람이 사람과 자연에 행한 끔찍한 폭력 행위를 똑바로 보게 하소서.

☞ 생명의 선택

1. 합천 평화의 집에 사는 원폭 2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핵무기 실험으로 희생당하는 마셜 제도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호 4:3)

🌐 오늘의 현실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자연을 과도하게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착취하여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배출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비주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탐욕과 경쟁은 더 많은 소비를 부추기며 지구의 피조세계를 황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땅은 슬퍼하고 피조세계는 쇠잔해지며 종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탈핵의 기도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계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함과 폭력으로 피조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하고 더 많이 소비함으로써 자연세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알고 마구 지어댑니다. 주님, 지구온난화와 원전의 위험 앞에서 우리의 탐욕을 직면하게 하소서.

🔑 생명의 선택

1. 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 실천합니다.
2. 원자력 에너지가 진짜 청정에너지인지 알아봅니다.

2015년 5월 27일(수)

에너지 3대 악법에 대한 기도(18일차)

📖 오늘의 말씀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미 6:11)

☼ 오늘의 현실

원전과 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 3대 악법이 있습니다. 주민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전원(電源)개발촉진법, 보상범위를 실제 피해범위보다 현격하게 줄인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송주법), 송전선로를 땅속으로 매설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규정하지 않아 밀양과 청도에 아픔을 준 전기사업법입니다. 약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법은 부정한 저울이나 거짓 저울추와 같습니다.

✚ 탈핵의 기도

말씀의 하나님, 에너지 3대 악법으로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원전 지역 주민들과 송전탑 통과 마을들이 있습니다. 약하고 악한 주민들은 날카로운 법 제정에 마음이 찢리고 불공평한 법 집행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정부와 정치인, 법조인들이 법 제정과 집행을 공평하게 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켜 주소서.

☞ 생명의 선택

1. 에너지 3대 악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2. 에너지 3대 악법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2015년 5월 28일(목)

풍력 에너지에 대한 기도(19일차)

📖 오늘의 말씀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시 104:2-3)

🌍 오늘의 현실

풍력 발전은 풍력 터빈을 이용해서 바람을 전력으로 바꾸는 것으로 탄소 발생이 거의 없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풍력 발전의 강국 덴마크는 20%의 전력을 풍력 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풍력 발전의 공개념 도입, 소규모 해상풍력 활성화, 주민 참여형 풍력 발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바람 에너지는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재생가능 에너지입니다.

✝️ 탈핵의 기도

말씀의 하나님, 엘리야는 회오리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왕하 2:11), 베드로는 폭풍우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마 14:25). 주님, 우리도 오늘 바람 에너지를 통해서 주님이 거저 주시는 바람의 은혜를 맞보고 자연현상 속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소서.

👉 생명의 선택

1. 두 팔을 펴고 신선한 바람에 몸을 맡기며 주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2. 우리 주위에 있는 크고 작은 풍력발전기를 찾아봅니다.

2015년 5월 29일(금)

정보공개를 위한 기도(20일차)

📖 오늘의 말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10:26)

☹️ 오늘의 현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지만, 원전 시설은 국가중요시설이라는 이유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많고 기업 자본이 투입되기에 위조와 조작과 비리가 많습니다. 원전 시설의 사고 내용은 외부에 의해 밝혀지거나 발각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 탈핵의 기도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만 원전 시설은 보자기에 감춰진 채 안으로 훑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추기에 더 위험스럽기도 합니다. 원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토론되어 시민들이 더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 생명의 선택

1. 원전을 둘러싼 비밀과 비리가 일소되기를 기도합니다.
2. 기회를 잡아 원전시설을 방문하여 원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2015년 5월 30일(토)

원전 인근 주민을 위한 기도(21일차)

📖 오늘의 말씀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잠 22:22-23)

🌐 오늘의 현실

원전 인근 주민들의 삶은 불안하고 불편하며 땅값이 떨어질까 봐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갑상선암 등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 반대 운동을 한 주민의 영업집은 원전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도 하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려 마을 공동체가 갈등을 겪습니다. 누가 이들을 신원하여 줄까요?

✝️ 탈핵의 기도

말씀의 하나님, 영광, 울진, 월성, 고리 4개의 원전 인근 주민들은 그 삶이 불안하고 불편하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수원은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보다는 원전에 대한 회유와 홍보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님께서 원전 인근 주민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정부와 한수원이 줄 수 없는 희망과 위로를 주옵소서.

👉 생명의 선택

1. 원전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평안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쓰면서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5년 5월 31일(주일)

공존을 위한 기도(22일차)

📖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창 9:15)

☯️ 오늘의 현실

노아의 홍수 직후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무지개 언약을 맺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세계까지도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과 식물의 피조세계와도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라늄 채굴로 자연을 착취하는 핵 발전을 넘어 자연에너지로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 탈핵의 기도

모든 생명의 하나님, 피조물과 함께 사는 데 서투른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위엔 동물도 식물도 없고, 오직 우리가 먹고 이용할 생물만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과 함께 맺은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며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자연과 약자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주는 핵 발전을 넘어 모두가 함께 살게 하옵소서.

☞ 생명의 선택

1. 원전 건설로 사라져 가는 동물과 식물을 생각해 봅니다.
2. 주위에 있는 나무와 동물에게 인사하고 말을 걸어 봅니다.

📖 오늘의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 15:11)

☢️ 오늘의 현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로 일본산 농수산물에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음식이나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일으키는 내부피폭이 걱정됩니다. 이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위협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 탈핵의 기도

모든 생명의 하나님, 방사능은 냄새도 맛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 우리는 일본산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위협하게 하는 시대에 살면서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과 우리 사회를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행하는 생명의 선택을 잘 하도록 도와주소서.

👉 생명의 선택

1.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일본산 음식은 무엇인지 나열합니다.
2. 음식물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2015년 6월 2일(화)

월성 1호기에 대한 기도(24일차)

📖 오늘의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 137:1)

☹️ 오늘의 현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어버렸지만, 지난 2월 27일 10년 연장을 허락받은 중수로 원전입니다. 주민들은 특히 삼중수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는데 또 다시 2022년까지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월성 주민들의 삶은 고향을 잃어버리고 뿌리 뽑혀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하며 우는 유다 백성들과 같습니다.

✚ 탈핵의 기도

모든 생명의 하나님, 월성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향을 빼앗기다시피 잃어버린 사람들의 억울함이 수명 연장 결정으로 인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어촌 마을이 원전 때문에 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도 해나 또 다시 위해를 당할까봐 크게 소리치지도 못하는 월성 주민들을 주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위로하옵소서.

☞ 생명의 선택

1. 지난 2월 27일 수명연장이 결정될 때 월성 주민들의 깨어지는 마음을 그려봅니다.
2.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국민 소송에 참여합니다.

2015년 6월 3일(수)

권력자와 정치인들에 대한 기도(25일차)

📖 오늘의 말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미 3:9)

🌐 오늘의 현실

핵 마피아도 문제이지만 국민의 소리, 주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원전 사업이 국가 사무이고 국가 정책이므로 강행하겠다고 외치는 권력자와 정치인들도 큰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불안함을 읽지 못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권력자와 정치인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과 진배없습니다.

✝️ 탈핵의 기도

모든 생명의 하나님, 원전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억울함과 불안함에 잠 못 이루고 있는데,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은 억울해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도 않은 채 정직한 것을 굽게 하며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명의 선택을 하여 국민과 주민들의 소리를 듣게 도와주소서.

👉 생명의 선택

1.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2. 원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왜 원전 폐쇄에 미온적인지 알아봅시다.

2015년 6월 4일(목)

지역 분산형 발전을 위한 기도(26일차)

📖 오늘의 말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미 4:4)

☯️ 오늘의 현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체계에 의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합니다. 이 구조는 필연적으로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 큰 부담을 주고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도 생깁니다. 지역 분산형 발전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자기 가족과 자기 지역의 포도나무 아래 앉아 그 열매를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 탈핵의 기도

모든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에텐동산 같이 크지 않은 공간에 두시고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살게 하신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의 폐해를 보면서, 그에 반해서 피조세계에 부담과 고통을 주지 않고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공존의 법칙을 배우려고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 생명의 선택

1. 자신이 사는 지역은 어떤 대안적 발전이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2. 내 손으로 작은 태양광 발전기를 만들어 봅니다.

2015년 6월 5일(금)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도(27일차)

📖 오늘의 말씀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눅 23:22-23)

☢️ 오늘의 현실

2014년에 정부는 삼척을 신규 원전 부지로 지정하고 원전 사업을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삼척은 주민투표를 거쳐 85%가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는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사무를 운운하며 삼척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빌라도의 판결과 다를 바가 없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 탈핵의 기도

모든 생명의 하나님, 국가가 국민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국가 사무를 운운하면서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국가의 마성을 경고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사회적 합의점에 이르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생명의 선택

1. 고리 1호기 재연장과 폐쇄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살펴봅시다.
2. 정부가 삼척을 보류하고 신규 원전 최종후보지로 선정한 영덕군에 관심을 둡니다.

2015년 6월 6일(토)

원전 노동자들을 위한 기도(28일차)

📖 오늘의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단 3:17)

☣️ 오늘의 현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방사성물질에 백혈병 산재인정 기준 이상으로 피폭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개 원전 지역에서 1만 여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며 그 중 절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폭 현장에 더 많이 내몰립니다. 풀무불과 같은 극도의 위험지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합니다.

♣️ 탈핵의 기도

모든 생명의 하나님, 우리나라의 4개 원전지역에서 1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그 중 절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피폭현장에서 방사능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업 여건이 개선되도록 주님께 서 도우시고 풀무불 같은 위험 속에서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하옵소서.

☞ 생명의 선택

1. 원전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원전 노동자들이 안전한 다른 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원전이 폐쇄되고 그들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2015년 6월 7일(주일)

사회와 개인의 건강을 위한 기도(29일차)

📖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호 2:21-22)

🌐 오늘의 현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삶의 유기적인 조화까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의 건강함, 신체와 정신의 조화, 자연의 소리를 듣고 피조세계에 응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응하는 것을 통틀어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사람들과 자연과 하나님과의 응답과 소통이 자유로울 때 건강하다 할 것입니다.

✝️ 탈핵의 기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드는 것이 삶의 이치라지만 우리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소서. 의학과 약제의 힘으로 건강을 겨우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사람들과 자연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고 소통하면서 신체도 마음도 영혼도 우리 사회도 건강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 생명의 선택

1.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합니다.
2. 사회, 나라, 피조세계의 건강을 위한 일을 찾아 실천합니다.

2015년 6월 8일(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기도(30일차)

📖 오늘의 말씀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이다.”
(막 13:14)

☣️ 오늘의 현실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재설정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방사능 누출사고가 났을 경우 주민 보호를 위해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설정에 핵발전소 운영자인 한수원이 깊숙이 개입하여 구역의 축소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위험하기에 국민의 안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지켜져야 합니다.

✚ 탈핵의 기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핵발전소와 같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산은 어디에 있는지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적 여건 등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축소하려는 세력이 있는 이때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안전이 되어주소서.

☞ 생명의 선택

1. 가장 가까운 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알아봅니다.
2. 자신이 태어난 고향은 원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아봅니다.

2015년 6월 9일(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피해자를 위한 기도(31일차)

📖 오늘의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 3:24)

🌐 오늘의 현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원전 폭발 사고로 많은 현지 주민들이 그들의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체르노빌은 29년이 지난 지금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반경 50킬로미터의 지역은 아직도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12만 명의 주민은 전국에 흩어져 피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나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실낙원의 아담과 같은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 탈핵의 기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를 보면서 원전사고가 사람과 자연에 미치는 엄청난 고통을 보게 됩니다. 고향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주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원전 폭발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을 지켜주소서.

👉 생명의 선택

1.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고향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어디에서도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2015년 6월 10일(수)

과학과 인간의 한계와 실수에 대한 기도(32일차)

📖 오늘의 말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잠 30:4)

☢️ 오늘의 현실

과학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파악하는 한 방편이지 그것으로 자연의 모든 비밀을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과학이 기업자본과 결합하면서부터 과학은 정치적, 경제적 판단에 좌우되곤 합니다. 그러나 안전신화를 뒤에 얹은 최첨단 원전시설 앞에서 인간은 실수를 하고 한계가 명백한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탈핵의 기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핵에너지를 절대능력인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의 대형 사고로 원전의 안전신화는 깨어졌고 실수하는 인간의 한계로 원전은 시시각각 위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겸허하게 우리를 돌아보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핵에너지를 포기하게 하소서.

☞ 생명의 선택

1. 원전 안전신화가 정말 가능한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2. 우리 자신의 한계점을 찾아보고 겸허한 마음을 품습니다.

📖 오늘의 말씀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4)

☯️ 오늘의 현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은 핵과 기독교 신앙은 양립할 수 없으며, 핵은 스스로 죽음에 대한 사랑에 빠져들어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으시는 생명의 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핵무기이든 핵발전이든 핵은 살생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성적인 핵을 넘어서 생명의 세상을 향한 순례의 길 위에 있습니다. 멀고 험하지만 생명을 선택하기 위한 순례를 떠나야 할 때입니다.

✝️ 탈핵의 기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히로시마 원폭을 보면서 희생자들의 고통을 보지 않았고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도 이 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돌이켜 핵폭탄과 핵 발전을 넘어서 생명의 세상을 향한 순례를 떠나려고 합니다. 탈핵의 꽃대를 향하여 생명을 선택하는 순례의 길을 떠나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 생명의 선택

1. 탈핵의 순례를 위해 지금 여기서 자신이 할 일을 하나 실천합니다.
2. 몇 년이 지나야 우리도 독일처럼 탈핵선언을 할 수 있을지 꿈을 꾸고 상상합니다.

2015년 6월 12일(금)

연대를 위한 기도(34일차)

📖 오늘의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 26:46)

☹️ 오늘의 현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고난의 시간을 함께 가자고 제자들에게 연대의 손을 건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도 혼자 겪으시기엔 너무도 큰 일 앞에서 함께 가자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탈핵을 위한 행동과 실천이 기독교인의 양심에 근거한 선한 사역이라면 탈핵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연대는 그만큼 소중하고도 절실해 지는 것입니다.

✝️ 탈핵의 기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탈핵이라는 거대한 변화는 혼자, 한 단체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길고도 먼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단체와 단체가 연대하여 탈핵의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애쓰고 힘씁니다. 더 촘촘한 연대의 끈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탈핵을 이루어내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 생명의 선택

1.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해 120개 단체가 연대한 고리 원전 1호기 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의 활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2. 탈핵을 위한 연대에 자신이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 오늘의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 9:2)

☢️ 오늘의 현실

고 김형률은 자신이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 2세 환우라고 공개하면서 원폭의 고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는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원폭 피해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확보하도록 특별법이 제정되길 주장하였습니다. 원폭피해자특별법은 큰 빛과 섬광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과 그 자녀들의 빛이 될 것입니다.

✚ 탈핵의 기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원폭 피해자들은 큰 빛과 섬광으로 절망을 대물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폭피해자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들과 자녀손들에게 빛이 됨으로써 희망을 대물림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는 합천에 주로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이 좀 더 인간답게 대접받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지켜주소서.

👉 생명의 선택

1. 고 김형률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2. 합천 평화의 집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의 애환을 듣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15년 6월 14일(주일)
평화를 위한 기도(36일차)

📖 오늘의 말씀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사 11:6)

☯️ 오늘의 현실

핵무기와 핵발전이 있는 동안은 사망의 위협과 희생의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핵의 문화를 반대하는 것은 핵이 어느 한 쪽을 죽이고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소외와 갈등이 평화의 큰 걸음으로, 핵을 넘어 생명의 세상으로 가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두가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극과 극의 생명이 만나는 상황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 탈핵의 기도

평화의 하나님, 탐욕과 경쟁에 익숙한 핵의 문화는 하나만 살고 하나는 죽으며, 하나만 이기고 하나는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평화의 문화는 나도 살고 너도 살며 극과 극이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세계에서는 도무지 그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의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 생명의 선택

1. 극과 극이 함께 사는 평화의 그 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2. 우리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는 실천을 하나 찾아 실천합니다.

📖 오늘의 말씀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왕상 21:16)

🚫 오늘의 현실

한전은 작년에 아직 운영허가도 나지 않은 신고리 3호기의 가동과 송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밀양의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몰아내고 송전탑을 세웠습니다. 부당한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인해 밀양과 청도 등지에서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땅을 빼앗기다시피 하는 나봇의 포도원 사태가 계속하여 벌어지고 있습니다.

✝️ 탈핵의 기도

평화의 하나님,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갈등은 거짓말과 폭력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아합왕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한전은 신경기변전소 건립 예정지로 여주와 이천, 광주, 양평을 후보지로 발표하여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주민들이 국가 사무의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소서.

👉 생명의 선택

1.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어느 송전탑을 거치는지 알아봅니다.
2. 주위에 가까운 송전탑이 몇 개가 보이는지 세어봅니다.

2015년 6월 16일(화)

환경파괴에 대한 기도(38일차)

📖 오늘의 말씀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렘 12:4)

☣️ 오늘의 현실

개발 중심의 산업화와 편리 중심의 정보화로 우리 사회는 석유와 전기의 소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으로 모든 생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인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땅은 슬퍼하며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 탈핵의 기도

평화의 하나님, 끝을 알 수 없는 우리의 탐욕과 이 세상에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오만함으로 인해 물은 더러워지고 공기는 탁해지며 흙은 오염되어 갑니다. 땅은 슬퍼하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자기 세대의 일에만 골몰합니다. 주님, 끊임없는 소비와 생산의 질곡에 빠져버린 이 땅, 이 사회를 고쳐주소서.

☞ 생명의 선택

1. 우리 주위에 환경이 파괴되고 훼손된 현장을 찾아봅니다.
2.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하나님의 자녀들(롬 8:19)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오늘의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 오늘의 현실

우리 사회는 석유와 전기에 기반한 사회입니다. 석유와 전기와 원전에 대한 무지하고 무리한 의존 덕분에 우리는 편리함과 안락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자연과 약자의 부담과 고통에는 무관심해져 버렸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데 우리 사회는 “나의 힘이신 석유와 전기여, 내가 당신을 완전 의존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 탈핵의 기도

평화의 하나님, 우리는 석유와 전기에 의존하여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순간순간 공산품의 원료인 석유화합물을 소비하고 전깃줄로 얽혀진 공간 안에서 전기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힘과 도움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주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모든 생명의 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안에서 생명과 평화를 찾게 하옵소서.

👉 생명의 선택

1. 오늘 저녁에는 전기 없는 생활을 1시간 이상 누리봅니다.
2. 하루 동안 최소한으로 소비하고 전화와 스마트폰 없이 살아봅니다.

2015년 6월 18일(목)

탈핵의 희망을 위한 기도(40일차)

📖 오늘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 오늘의 현실

탈핵을 위한 길은 멀고도 험하며 끝이 안 보이는 순례의 길입니다. 1975년 독일의 작은 도시 뷔hl(Wyhl)에서 원자력 발전소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 36년 만에 독일은 탈핵을 선언하였습니다. 탈핵은 긴 숨으로 가야합니다. 좀 더 인내하고 연대하며 꾸준히 탈핵을 외치고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면 때가 이르러 탈핵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 탈핵의 기도

평화의 하나님, 핵 마피아 세력은 크고 강하며 탈핵을 외치는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고 한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숨을 쉬며 조바심 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탈핵의 등불을 켜서 자연과 공존하며 약자와 함께 살며 인내하고 땀 흘리는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평화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 생명의 선택

1. 숨을 꼭 참고 기다리며 탈핵의 세상을 꿈꿔봅니다.
2. 현실의 한숨을 탈핵 희망의 큰 숨으로 바꾸어 봅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핵그런)은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을 신앙고백으로 삼고 한국 교회가 ‘핵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교회’로 자기를 고백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과 동북아시아, 전 세계가 핵무기와 핵발전소가 없는 생명과 안전,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대 단체입니다. 핵그런은 2012년 4월 23일 창립되었으며, 현재 36개의 교회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을 축약한 내용입니다.

- 피폭자의 자리에 서서
- 핵은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 핵발전은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 핵폐기물로 인한 지구오염과 생명파괴는 창조질서의 파괴이고 신성모독의 죄다
- 에너지 탐욕과 소비주의에 기초한 핵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 한국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사이비 녹색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 세계 최대의 핵 밀집 지역인 동북아시아에서 생명의 연대가 시급하다
- 핵과 기독교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

✦ 그리스도인 행동강령

1. 우리는 핵에 대한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영적 각성이 이 시대의 신앙적 과제임을 인식한다.
2. 우리는 핵 관련 정보의 숨김없는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한국정부가 핵발전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고 핵무역에서도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우리는 각 정당들이 탈핵 정책을 입안하고 채택하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한다.
5. 우리는 핵안보정상회의가 핵무기의 전면적 철폐와 핵발전의 완전한 종결을 핵심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6. 우리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한 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탈핵 에너지 전환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한다.
7. 우리는 ‘핵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동북아시아 그리스도인 생명연대를 적극 추진한다.
8. 우리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이웃종교와의 생명연대를 모색하는 등 새로운 생명문화의 창조에 나선다.
9. 우리는 기술만능적인 과학운리를 비판하면서 핵문제에 대한 종교와 과학간 대화를 제안하고 실행한다.
10. 우리는 ‘핵무기와 핵에너지’ 문제가 교회와 교단의 핵심의제로 채택되기를 요구한다.

이 기도집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교회위원회에서 펴냈으며, 여울교회 김대현 님께서 재능기부로 편집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선한 사역에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008601-04-115048 안홍철 (집행위원장, 핵그런 공식계좌)



핵없는 생명세상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